판매회사
내부직원용

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(미달러)[대출채권-재간접형]

2025년 05월말 기준

투자목적 및 전략

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(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(미달러)[대출채권-재간접형])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과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-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(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)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.

- 이 투자신탁은 매입신청,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,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

펀드내역

펀드규모(NAV) 71,090,510원

-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(미달러)[대출채권-재간접형] 187억 원

펀드유형 특별자산투자신탁
- 모투자신탁 편입비: 80% 이상
- 모투자신탁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편입비: 60% 이상 (단,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0% 이상)

설정일

(운용펀드 : 2015년 05월 26일)

벤치마크 {SOFR(USD) 75% + 연 1.90% +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(USD) 25%} 90% + SOFR(USD) 10%

신탁업자 하나은행

환매대금 지급일

구분	기준가격 적용일	환매대금 지급일
17시 이전	4영업일	8영업일
17시 경과후	5영업일	9영업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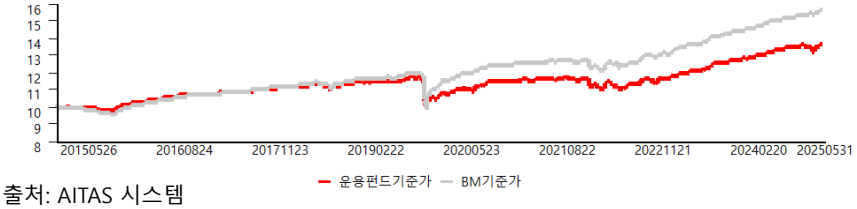
투자위험등급 4등급(보통위험)

1	2	3	**4**	5	6

펀드 운용 성과

	누적수익률							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2년	3년	5년	설정이후
운용펀드	1.15%	0.95%	2.00%	6.84%	17.72%	21.38%	27.82%	36.62%
벤치마크	0.75%	1.43%	3.11%	7.72%	19.58%	26.77%	38.27%	55.86%

-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.
-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,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(세전 수익률)
-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.
- 해당 수익률은 미달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


출처: AITAS 시스템

자산 구성 현황 (2025년 05월말, 모투자신탁 기준)

상위 보유 종목 (2025년 05월말, 모투자신탁 편입비중 기준)

종목명	비중(%)
SPDR Blackstone Senior Loan ETF	24.0
Invesco Senior Loan ETF	23.9
First Trust Senior Loan ETF	23.3
iShares iBoxx $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	14.0
iShares 0-5 Year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	12.0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·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
※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(Prudential Financial Inc.)과 영국 M&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.

(공통사항)

운용 0.35%, 신탁 0.04%, 사무관리0.014%

선취수수료

-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.7% 이내
- 클래스 C 없음

환매수수료

없음

시장동향 및 운용현황

5월 미국 뱅크론 시장은 S&P/LSTA 레버리지론 지수 기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.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, 위험 자산 시장의 상승세가 촉진되었습니다. 하지만 미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세금 법안이 국가 부채 증가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하면서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하였습니다.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월 대비 상승한 3.89%로 10년물은 24bps 상승하였습니다. 30년물 금리는 26bps 상승한 4.92%였습니다. 레버리지론 수급측면에서는 2월부터 자금 유입 강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3월에 이어 4월에도 유출세를 보였습니다. 시장 변동성 확대로 3월에 이어 4월에도 급감하였던 레버리지 론 신규 발행 규모는 5월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.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5월 기준 0.74%로 4월 0.73% 과 흐름을 같이 하였고 여전히 과거 10년 평균인 1.50% 수준을 밑돌았습니다.

시장전망 및 운용계획

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는 투자심리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회피 심리가 커져 갈 때에 레버리지 론 자산은 구조적으로 담보부 대출로서 무담보 회사채인 하이일드 채권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. 당분간은 정책 변수에 따라 금리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금리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정책 협상 진전을 통하여 위험 자산 선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추후 하이일드/뱅크론의 부도율이 상승할 조짐이 보일 때에는 투자적격 자산 역시 동시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. 이렇듯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뱅크론 시장의 부도율을 모니터링하며 펀드의 리스크를 줄일 계획입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·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
※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(Prudential Financial Inc.)과 영국 M&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.